“기술보다 AI가 키울 ‘탐진치’ 살펴야”

불교평론, 창간 27주년 심포지엄
AI 전망 · 윤리학 등 다각도 조명
정상교, 現불교 AI담론 문제 제기
“기계 깨달음 아닌 고통 치유 우선”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은 지난 5월 6일 ‘부처님오신날 로봇 수계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수계식 직후 휴머노이드 로봇 스님 ‘가비’를 선두로 탑돌이가 진행되는 모습.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불교가 AI시대에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지점은 SF적 상상력에 추상적인 경전의 비유를 배대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고도화된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AI가 우리의 탐진치를 어떻게 교묘하게 자극하고 강화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불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상담·교육·포교를 돕는 도구와 인간을 대체하는 ‘휴머노이드 스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교 대표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은 8월 2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 AI를 만나다’를 주제로 창간 27주년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AI에 대한 전망과 과제부터 불교윤리적 조명, 활용 방안까지 폭 넓은 분야에서의 조명이 이뤄졌다.

특히 정상교 금강대 교수는 ‘불교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봇 스님의 환상을 넘어’를 통해 불교가 현실적으로 다뤄야 할 AI 문제를 탐진치와 사회구조의 차원에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지난 5월 조계사 수계식에서 로봇 ‘가비’가 법명과 연비를 받고, 연등회에서 로봇 도반들이 행렬에 참여한 사례로 제시하며 “현재 불교 AI 담론은 AI가 인간을 지배할지 모른다는 종말론적 AI관을 불교 경전의 추상적 문구와 상상력으로 뒤섞은 채 언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불교계의 AI 담론에는 서로 다른 두 층위가 혼재한다고 분석했다. 하나는 명상 앱과 상담 챗봇, 경전 데이터베이스처럼 인간의 수행과 포교를 보조하는 도구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 승려를 대체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상정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정 교수는 먼저 불교와 과학을 직접 동일시하는 관점을 경계했다. 연기·공·유심과 양자 중첩·양자 얽힘 사이에 설명상의 유사성은 있지만, 이는 추상적 비유의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과학은 반복 가능한 실험과 수학적 공식화를 요구하는 반면, 불교의 교리는 수행자의 육체적·정신적 체험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이다.

실제 불교계에서 AI 활용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일본 고다이지의 로봇 승려 ‘마인다’를 비롯해 쿠마가이 세이지 교토대 교수팀의 ‘붓다봇’과 ‘붓다로이드’, 본지의 상담봇 ‘해심이’ 등이 대표적이다.

붓다로이드의 경우 경전에 기록된 붓다와 제자의 대화를 데이터화하고 대규모 언어모델을 결합한 휴머노이드로, 불교학자가 경전과 지식을 선별하고 엔지니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그러나 정 교수는 “현재의 붓다로이드가 합장하고 독경하는 모습은 인생의 고뇌에 답하는 SF영화 속 로봇 스님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초기 단계의 로봇 기술과 AI 챗봇, 기업의 성과 홍보, 언론 보도와 SF영화가 결합하면서 휴머노이드 주지 스님이 곧 현실화할 것 같은 착시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개별 기술은 점에 불과하지만 멀리서 보면 완성된 이미지로 보이는 점묘화와 같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AI시대 불교는 로봇 스님의 수행과 깨달음, 마인드 업로딩 등과 같은 가상의 스토리텔링보다 무엇이 기술적 허상이고 실상인지를 파악하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생산성을 높인다고 해도 탐진치에서 파생되는 고통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전제한 정 교수는 “불교가 집중해야 할 ‘공중보건’은 붓다의 출현 이후에도 중생에게 존재하는 탐진치를 방지하고 치료하는 일이지 깨달음까지 획득한다는 휴머노이드 스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구본권 AI와 리터러시연구소장이 ‘인공지능 충격의 원인과 향후 과제’,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가 ‘인공지능, 축복인가 재앙인가’, 안환기 능인대학원대 교수가 ‘인공지능의 인식 체계와 유식론’, 김태수 서울대 학술연구교수가 ‘인공지능 시대의 불교윤리’, 송현주 순천향대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 종교 환경의 변화’를 발표했다.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등 보물 지정

국가유산청 8월 27일 지정 공고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 등 5건도



보물로 지정된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조선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을 비롯해 ‘임실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 ‘이경윤 필 산수인물도첩’, ‘삼봉선생집 권1’,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3’, ‘안성 고신왕지’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했다”고 8월 28일 밝혔다.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은 불교미술에서 주로 불화로 그려지던 제석천상을 조각으로 조성한 흔치 않은 사례이다. 2008년 발견된 복장물의 중수 기록과 목조문수동자좌상(국보)의 발원문을 통해 적어도 1645년(인조 23) 이전에 조성된 조선 전기 작품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의자에 앉은 자세, 통통하고 양감 있는 얼굴, 높이 들어 올린 보계 등에서 고려 후기 양식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조선 전기 불교 조각사 연구 및 당시 복장 납입 의식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임실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은 9세기 말~10세기 초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불이다. 손과 신체 일부는 결실됐으나 균형 잡힌 비례와 정제된 조각 수법에서 원형미가 잘 드러난다.

국가유산청은 “임실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은 신라 하대 구산선문 중 가장 먼저 세워진 실상선문의 거점 사찰인 임실 진구사에 봉안된 것으로 추정되며, 역사성·예술성·조형성을 갖춘 우수한 작품”이라고 지정의 이유를 밝혔다.

호림박물관 소장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3’은 당나라 현장이 번역한 총 100권 중 권3에 해당하는 전적이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동일한 권차가 발견된 적이 없는 유일한 판본으로 희소성이 매우 높다.

국가유산청은 “고려시대에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읽을 수 있도록 토를 단 석독구결(釋讀口訣)이 치밀하게 표시돼 있어 국어사 연구에도 귀중한 사료”라고 설명했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 佛音 담긴 국악공연 한마당

‘한국음악과 제1회 정기연주회’
9월 11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서
영산회상, 사물놀이 등 총망라

불음(佛音)의 맥을 잇는 전통 국악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는 “건학 120주년을 맞이해 오는 9월 11일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한국음악과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국대 한국음악과는 2023년 첫 학부 신입생을 맞이한 이래, 대학원 석사·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까지 체계적으로 개설하며 명실상부한 고등 예술 교육 체계를 완성했다. 이번 연주회는 그동안 축적된 교육적 성과와 불교종립대학으로서 정체성을 담아내는 첫 공식 무대다.

총 5부작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전통음악의 가장 깊은 뿌리인 불교음악에서 출발해 현대 국악관현악으로 확장되는 우리 소리의 역동적 흐름을 선보인다.

제1부에서는 경건한 예경과 법열을 담은 ‘영산회상과 예불문’이 펼쳐지며 제2부에서는 민중의 희로애락을 품어내는 민속화청, 경·서도민, 정가 등을 만날 수 있다.

제3부에서는 역동적인 신명의 장단인 ‘사물놀이’가, 제4부에서는 웅장한 도약과 예술적 호흡을 담아낸 대편성 ‘국악관현악’이 선보인다. 제5부에서는 대규모 합창과 관현악이 어우러진 ‘교성곡’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이번 무대를 위해 대한민국 국악계를 대표하는 석좌 교수진,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최고의 명인 및 외래교수진이 여름방학 내내 학생들을 1:1로 밀착 지도하며 완성도를 끌어올렸다는 후문이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를 통해 “건학 120년의 역사 위에서 싹튼 한국음악과가 선보이는 이번 첫 무대는 부처님의 지혜와 법통이 소리의 예술로 승화된 뜻깊은 회향의 장”이라며 “예악당을 채우는 장엄한 울림이 사바세계를 정화하고 한국 음악의 새로운 도약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격려했다.

신중일 기자

중앙승가대 대학원장에 금강 스님

9월 1일자…“학술 연구 매진”



중앙승가대 신임 대학원장에 금강 스님(불교상담학 전공 교수)이 9월 1일자로 임명됐다.

금강 스님은 “2학기 개강에 맞춰 대학원 교육부와 함께 승가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불교 학술 연구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강 스님은 지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5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8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1995년 2월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2021년 중앙승가대 불교상담학 전공 전임 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승가대신문 주간, 불교중앙도서관장, 교학처장, 교수협의회장 등 교내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승가교육위원장과 선명상위원장, 고시위원을 맡고 있다.

중앙승가대 대학원은 조계종 종립 승가전문교육기관으로, 2002년 교육부에서 설립인가를 받았다. 대학원에는 불교학과 산하에 불교학·역경학·실천불교학·문화재학·상담학·사회복지학 등 모두 6개 전공이 개설돼 있다. 김내영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한마음선원은
불법의 궁극적 목표인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서
모든 중생이 본래로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www.bs.hanmaum.org | 051)403-7077
부설 한마음유치원 www.한마음유치원.kr